

##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선교회

###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성지입니다

**2008 년 2 월 24 일**



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. “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.”

“내 형제자매들아,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이 메시지들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면서 모든 그리스도교의 일치로 지향하는 이 (거룩한 사랑의) 선교회를 통해 너희에게 왔다. 인류는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만 창조주와 화해할 수 있다. 가톨릭 신자나 이슬람 교도, 또는 미국인이나 중국인 뿐 아니라 모든 영혼이 각자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. 내 형제자매들아, 너희 마음이 회심하고 나면, 너희는 세상에서 이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.”

“오늘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.”

**2015 년 4 월 6 일**



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. “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.”

“오늘날 이곳에 있는 이 선교사업이 에큐메니컬인 것처럼 (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) 나의 선교사업도 에큐메니컬 즉,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위한 선교사업이었다. 나는 결코 이 선교회가 한 집단이나 기성 종교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. 인류는 절대 성령의

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면 안된다. 그런 노력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.”

“‘에큐메니컬’이라는 말은 이 선교사업이 한 기관의 관리(통제) 아래 감시를 받지 않게 한다. 이것은 좋은 일이며, 이곳의 모든 은총의 혜택을 모든 이가 얻을 수 있게 한다. 그러므로, 너희가 어느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 (이곳은) 모든 이를 환영한다. 모든 이는 이곳에 와서 직접 체험하도록 초대받았다.”

**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.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.**

**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.**

(March 22, 2021)